코로나 아픔 딛고, 암 이겨내고…'값진 메달' 빛났다

여자 펜싱 코로나 확진 후유증 극복 의기투합 은메달
태권도 인교돈 림프종 극복 '희망의 발차기'로 동메달

TOKYO 2020

코로나19 악재를 딛고, 암을 이겨내고 '금메달만큼 값진 메달'이 만들어졌다.

지난 27일 강영미(36·광주 서구청), 최인정(31·계룡시청), 송세라(28·부산광역시청), 이혜인(26·강원도청)으로 구성된 한국 펜싱 여자 에페 대표팀은 9년 만에 올림픽 단체전 은메달 소식을 전했다.

준결승에서 '세계 1위' 중국을 꺾었던 만큼 금메달에 대한 기대감은 컸지만, 에스토니아와의 결승에서 32-36으로 지면서 은메달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2012년 런던 대회 이후 9년 만에 기록된 은메달은 지난 24일 남자 사브르 개인전 김정환(38·국민체육진흥공단)의 동메달에 이은 이번 대회 두 번째 펜싱 메달이 됐다.

'코로나19' 악재를 딛고 만든 메달이라 선수들에게는 아쉬움보다는 감동이 더 컸다.

지난해 3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국제 그랑프리 대회에 출전했던 대표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나오면서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던 한국 선수단에서 나온 첫 확진 사례였기에 마음고생이 심했다.

코로나 아픔을 딛고 은메달을 이룬 이들은 시상식에서 특별한 세리머니를 선보였다. 시상대에 올라 만세를 부른 선수들은 이내 손을 들어 보였다. 손에는 월계관 모양의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올림픽을 앞두고 '월계관 반지'를 맞춰 끼며 의기투합한 선수들은 의미 있는 은메달도 함께 목에 걸었다.

처음 '노골드'로 올림픽을 마무리한 태권도에서도 아쉬움을 달래주는 감동의 메달이 나왔다.

태권도 경기 마지막 날이었던 27일, 남자 80kg 초과급의 인교돈(29·한국가스공사)은 콘라드 트라이코비치(슬로베니아)를 5-4로 누르고 동메달을 수확했다.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상상할 수 없었던 올림픽 무대였기에 인교돈에게는 소중한 메달이 됐다.

인교돈은 22살이던 지난 2014년 8월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한동안 도복을 입지 못했던 그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태권도를 놓지 않았다.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에 출전해 은메달을 따내며 재기에 성공한 인교돈은 2019년에는 기다렸던 완치 판정을 받으면서 올림픽의 꿈을 이어갔다.

그리고 코로나19로 1년을 더 기다린 끝에 2021년, 자신의 첫 올림픽 무대에서 소중한 동메달을 품에 안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27일 일본 지바 마쿠하리 메세B홀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펜싱 여자 에페 단체에서 은메달을 딴 대한민국 선수들이 은메달을 들고 웃고 있다. /연합뉴스

남자 태권도 80kg 초과급 인교돈이 동메달을 획득한 뒤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배드민턴 안세영 16강…한국 여자복식 모두 8강행

배드민턴 여자단식 안세영(19·삼성생명)이 2020 도쿄올림픽 조별리그를 전승으로 가뿐하게 통과해 16강에 안착했다.

안세영은 27일 일본 도쿄 무사시노노모리 종합 스포츠플라자에서 열린 대회 배드민턴 여자단식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도르카스 아조크 아데소칸(나이지리아)을 2-0(21-3 21-6)으로 완파했다.

세계랭킹 8위인 안세영에게 세계랭킹 89위인 아데소칸은 적수가 되지 않았다.

안세영은 지난 24일 조별리그 1차전에서 세계랭킹 67위 클라라 아수르멘디(스페인)를 2-0으로 누른 데 이어 연승을 달렸다.

이로써 안세영은 C조 1위로 16강 티켓을 따냈다. 올림픽 배드민턴 단식 경기에서는 각 조 1위가 16강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16강에서 안세영은 D조 1위를 차지한 세계랭킹 13위 부사난 옹밤룽판(태국)과 맞붙는다.

여자복식 세계랭킹 4위 이소희-신승찬(이상 27·인천국제공항)과 5위 김소영(29·인천국제공항)-공희용(25·전북은행)은 모두 8강 진출을 확정했다. 올림픽 배드민턴 복식 경기는 조별리그를 거쳐 8강에 진출할 팀을 정한다. 각 조에서 4팀 중 1·2위 안에 들어야 8강에 오른다.

이소희-신승찬은 여자복식 조별리그 C조 3차전에서 세계랭킹 7위 두웨-리인후이(중국)을 2-0(21-19 21-12)으로 제압했다.

조별리그 2승 1패를 기록한 김소영-공희용은 3승을 거둔 천칭천-자이판을 이어 D조 2위로 8강 진출을 확정했다.

한편 남자복식 최솔규(26·요넥스)-서승재(24·삼성생명)는 조별리그 D조 3차전에서 무하맛 아산-헨드라 세티아완(인도네시아)에 1-2(12-21 21-19 18-21)로 패해 8강 진출에 실패했다.

최솔규-서승재는 조별리그를 1승 2패로 마쳤다. /연합뉴스

도쿄올림픽 여자 태권도 67kg 초과급 결승에서 한국 이다빈이 세르비아 밀리차 만디치에 패한 뒤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태권도가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노 골드'에 그치면서 종주국의 체면을 구겼다.

우리나라는 이다빈(25·서울시청)이 27일 일본 지바 마쿠하리 메세 A홀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태권도 경기 마지막 날 여자 67kg초과급 결승에서 밀리차 만디치(세르비아)에게 7-10으로 져 은메달을 추가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이번 올림픽에서 6개 체급에 출전해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고 대회를 마쳤다.

태권도가 2000년 시드니 대회부터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치러진 이래 종주국인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하나도 못 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림픽 무대는 처음인 이다빈은 준결승에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이자 올림픽 랭킹 세계 1위인 비안카 워크던(영국)에게 25-24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둬 금메달 꿈을 부풀렸다.

하지만 세계랭킹 3위 만디치는 넘어서지 못했다. 이다빈은 1라운드에서 만디치의 발차기에 머리와 몸통을 차례로 맞고 0-5로 끌려갔다.

2라운드에서는 힘을 내 상대 감점에 이어 몸통 공격을 성공시키는 등 3-6까지 추격했다.

이후 3라운드 중반 주먹 공격에 이어 몸통 발차기로 6-6 동점을 만들었다.

하지만 곧바로 똑같이 주먹에 이은 몸통 발차기를 만디치에게 허용해 연속해서 석 점을 내줘 종료 12초 전 6-9로 끌려간 뒤로는 끝내 이를 만회하지 못했다.

이다빈은 올림픽에서만 금메달을 따면 태권도 4개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정상에 오르며 그랜드슬램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연합뉴스

여서정 난도 6.2로 메달 노린다

8월 1일 도마 결선…이윤서 한국선수 최고 순위 도전

여서정(19·수원시청)과 이윤서(18·서울체고)는 2020 도쿄올림픽에서 역대 한국 여자 기계체조 선수로는 최고 순위에 도전한다.

단체전에 출전하는 팀이 아닌 세계랭킹에 따라 홀로 나서는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 무대를 밟은 둘은 결선에 올라 1차 목표를 달성했다.

여서정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도마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아버지 여홍철(50) 경희대 교수를 따라 25년 만에 여자 도마 결선에 진출했다. 예선 통과 순위도 4위로 좋았다.

도마-이단 평행봉-평균대-마루운동 4개 종목을 모두 뛰는 개인 종합 전문 선수인 이윤서는 예선을 22위로 통과해 24명이 겨루는 결선 무대를 앞뒀다.

우리나라 여자 선수가 올림픽 개인종합 결선에 오른 건 1988년 서울 대회에서 박지숙(21위), 한경임(30위), 배은미(33위)에 이어 무려 33년 만이다.

이윤서는 결선에서 박지숙의 21위를 넘는 역대 한국 여자 올림픽 개인종합 최고 순위도 바라본다.

여서정은 8월 1일 세계 최고 체조 선수인 시몬 바일스(미국) 등과 결선을 치른다.

이윤서는 29일 개인종합 결선에서 꿈의 연기를 선사한다.

여서정은 난도 6.2점짜리 '여서정' 기술을 구사해 경쟁자들과 맞설 예정이다.

'여서정'은 여홍철 교수의 '여 2' 기술(힘차게 달려와 양손으로 도마를 짚은 뒤 공중으로 몸을 띄워 두 바퀴 반을 비틀어 내리는 기술로 900도 회전)보다 반 바퀴 덜 도는, 720도 회전 기술이다.

여서정은 2019년 제주 코리아컵 국제대회에서 이 기술에 성공해 국제체조연맹(FIG) 채점 규정집에 올렸다.

이 감독은 "도마 예선 1~3위 선수들이 난도 6.0점짜리 기술을 연기했다"며 "결선에서 이들과 경쟁하려면 여서정이 난도 점수를 0.4점 높인 '여서정'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소개했다.

여서정은 한국에서도 이 기술을 연습했고,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일본 도쿄 아리아케 체조경기장에서 치른 포듐 훈련에서도 선보였다. /연합뉴스

'모로코 타이슨'

복싱 경기중 상대 선수 귀 물어뜯으려다 실격 처리

2020 도쿄올림픽 복싱 경기 도중 상대 선수 귀를 물어뜯으려던 선수가 실격 처리됐다.

27일 일본 도쿄 국기관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복싱 남자 헤비급 경기에서 유네스 발라(모로코)는 데이비드 나이카(뉴질랜드)와 경기 도중 상대 선수 귀를 물어뜯으려는 동작을 취했다.

깜짝 놀란 나이카가 얼굴을 돌려 다행히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이 에반더 홀리필드와 1997년 맞대결에서 상대 귀를 물어뜯은 장면이 재현되지는 않았다.

나이카는 경기를 마친 뒤 "그가 마우스피스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리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1997년 타이슨은 홀리필드의 귀를 물어뜯기 전에 마우스피스를 뱉고 '깨물기 공격'을 감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기는 5-0 심판 전원일치로 나이카의 판정승으로 끝났으나 경기 종료 후 주심이 관련 영상을 확인한 뒤 발라를 실격 처리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명백히 귀나 얼굴을 이빨로 물려는 의도가 확인됐다"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I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모가디슈
2관	모가디슈
3관	보스 베이비 2, 정글 크루즈
4관	보스 베이비 2, 정글 크루즈
5관	모가디슈
6관	방법: 재차의
9관	블랙 위도우
7관 씨네커플	모가디슈, 랑종 이스케이프 룸 2: 노 웨이 아웃
8관 씨네커플	방법: 재차의, 발신제한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시즌
박수를 보내다 : 독주회 II
원재연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1. 08. 21.(토)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

GAC 11시 음악산책 5
조진주, 소리너머
일시 : 2021. 08. 25.(수) 11: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2